

일생묵노... '먹그림'의 진수를 만나다

<一生墨奴>



고(故)조방원 화백



▶'고사관목도'

광주시립미술관 8월 15일까지 '아산 조방원 전'

작품 100여점·자료 50점 전시...60년 예술세계 조명 무안 출신...남도국악원·도립옥과미술관 설립 주도

'이 시대 마지막 남종화 대가' 아산 조방원(1926~2014) 화백의 회화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매년 원로·작고작가전을 기획하며 남도 미술 뿌리를 조명하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이 '龜山 조방원-나그네를 기다리는 그 어느 산속의 집으로'전을 8월15일까지 개최한다. 전시개막식 6월2일 오후 4시.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 100여점, 아카이브 자료 50여점을 통해 전통 수묵을 계승한 조창기부터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이룩한 2000년대 이후까지 조 화백의 일생을 살펴본다.

1926년 무안군에서 태어난 조 화백은 1945년 남농 허건에게 그림을 배우면서 본격 화가의 길을 걷는다. 1953년 제2회 국전 입선, 1955년 제4회 국전에서는 문교

부장관상을 받으며 명성을 쌓았다. 조 화백은 산수풍경 등을 즐겼 수묵으로 그려 '먹산수 화가'로 불린다. 근대 한국화대가 월전 장우성은 조 화백이 1979년 서울에서 연 전시를 보고 "먹그림으로 당대 아산을 따를 사람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조 화백은 농촌에서 일하는 농부 풍경을 한국 특유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라봤다. 화폭에 담은 이상 세계는 가장 가고 싶은 공간, 고향 같은 편안한 공간이다. 한국전쟁과 남북 분단, 산업화 등 격변기를 거치면서도 이상 세계를 담은 산수화를 고집하며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했다. 조 화백은 남농을 사사했지만 남농을 따르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초기 작품은 수묵을 통해 원근법적 시각으로 근경(近景)을 담아냈다. 전시 출품작인 제6회 국

전 특선작 '연'(蓮)을 비롯해 '월령'(月影·1957)은 농부, 방아 찧는 아낙네, 나무에 둘러싸인 찌그러진 초가집 등 주변을 그린 산수화다. 또 사람을 작게 그리는 여느 산수화와는 달리 인물을 크게 그리기도 했다. 1980년대 그린 '한산'은 바위에 걸터앉은 소년으로 화폭을 채웠다. 조 화백은 정면을 응시하는 사람을 그려 놓으며 관람객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었다. 같은 시기 작업한 '묵우'(墨雨)에는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 까까머리 소년들과 사선으로 시원하게 그른 붓질이 눈에 띈다. 종이와 먹이 가진 성질을 최대한 활용해 시원하면서도 습윤한 물을 표현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조 화백은 1994년 광주에서 곡성 연화마을로 작업실을 옮긴다. 연화마을 시기 작품들은 형상을 드러내기 보다 먹의 몽개 단순화된 화면을 표현했다. 수묵을 현대 회화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바람과 나무를 단순화시킨 1990년대 그린 '설촌'(雪村), 2000년대 '월하' 등은 그

가 추구했던 정아한 산수풍경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작품은 2004년 당뇨합병증으로 실명 위기가 찾아왔지만 오히려 "이제 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며 더욱 힘을 내 그린 그림들로, 작업에 대한 의지가 느껴진다. 또한 2005년 달력으로 만들어지기도 한 '달마도'는 시력을 조금 회복한 조 화백이 인간의 정신과 본질을 빠른 붓질로 담아낸 흔적이 엿보인다. 아카이브 자료에서는 누구보다 고향을 사랑했던 조 화백의 남도 애정을 느낄 수 있다. 평소 국악인들의 쇠락을 아쉬워하던 그는 남도국악원 설립(1968년)을 주도하고 제자 양성을 위해 담양에 '묵노헌(墨奴軒)'을 지었다. 또 전남도에 1988년 작품 6801점(간찰 572, 서화·서첩류 92, 성리대전목판각 939)과 개인 소유 부지(1만4090㎡)를 기증하며 1996년 도립전남옥과미술관을 설립에 이바지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가 수집했던 간찰과 서화류도 함께 볼 수 있다. 문의 062-613-714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묵우'



'한산'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졸업작품 패션쇼

내일 호남대 문화체육관

예비 의상 디자이너들의 참신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제 36회 졸업작품패션쇼 '52 LAB'을 연다. 1일 오후 7시 호남대 문화체육관.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 52명이 참여, 전통한복부터 현대 의상까지 창의적이고 개성이 담긴 작품 140여점을 선보인다. 김혜원·최의선·진예림 학생은 'T-wofold'를 주제로, 화이트 계열 의상을 작업했다. 선과 고리를 이용한 초현대적인 디자인을 강조했다. 'Be neat'로 몽친 정혜영·유윤경 학생은 투명한 비닐과 그물 패션을 활용해 역동적인 이미지와 경쾌한 느낌을 담았다. 김예림·조유나·이현주·최강국·홍예현 학생은 한복과 서양 드레스의 만남을 시도했다. 한국 고유 색상과 곡선에 풍성한 서양식 장식을 가미해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했다. 반대로 박하정·전유라·전승희 초야뉴·김서정 학생은 꽃무늬로 한 서양 드레스를 제작해 비교하는 즐거움을 준다. 외국인 학생의 감각도 볼 수 있다. 노시형 학생과 팀을 꾸린 엔쓰아오 학생은 수묵으로 십자기를 표현하고 빛을 형상화한 현대적인 남성복을 출품한다. 그밖에 셔츠와 바지를 결합하거나 검은 천과 옷감을 활용한 실험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예림 작 '공진'

송진희 예술대학장은 "학생들은 실무 중심 교육을 비롯해 각종 공모전을 통해 실력을 닦아왔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예비 디자이너들이 한국 패션산업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940-3849.

색에 대한 색다른 발견

광주문예회관 내달 11일까지 '탐미탐색'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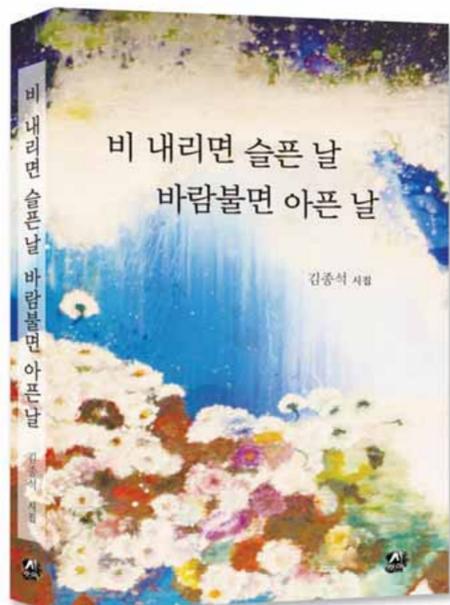
▶최정희 작 '소안도의 바람-교감 II'

광주문예회관 기획전 '탐미탐색' (耽美耽色)이 오는 6월 11일까지 회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강한 자신만의 강렬한 '색'으로 자신만의 사상과 정서를 표현해내는 고미음, 김혜원, 윤준성, 이태희, 조강수, 최정희 작가를 초청,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고미음은 누구나 한번은 꿈꾸어봤을 마음속 환상의 공간이자 휴식처를 다채로운 색채로 화면 가득 풀어내며 김혜원은 노란색과 붉은색의 조화를 통해 슬픔과 위로를 전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또 윤준성은 단편적인 생각들을 오색 찬란한 작은 파편으로 표현한 '단상' 시리즈를, 조강수는 무수히 반복되는 선의 흐름을 중첩시켜 푸른색의 신비로운 화면을 만들어낸 작품을 전시한다. 그밖에 최정희는 자연의 풍경 중 '풀'을 극사실적 묘사를 통해 그려내며 자연이 주는 푸르름과 인간의 교감을 이야기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관람시간은 공연이 있는 날은 오후 1시부터 9시, 공연이 없는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비 내리면 슬픈 날, 바람불면 아픈 날

사랑과 이별의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슬픔, 고통, 죽음, 이별, 후회, 반성의 시편들과 함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양장본 · 198쪽 · 값 20,000원 **시산맥** 02-764-8722

장미의 외출중에서

김종석 시인의 시 속에서 내 젊은 날의 방향과 열정을 만난다. 시인은 지금도 '장미의 외출'을 꿈꾸며, '눈멀고 귀 멀어도, 나 거기서 죽겠' ('사랑했었네')라는 순수한 영혼을 만나고 있다. 또한 '밤이면 내 가슴에 별' ('별들은 내 발걸음 함께 하며')를 꽃피우며 '천장에 들려오는 노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 ('별이 비워둔 곳을 향해')하는 어린 천사를 만난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피어있는' ('사막에 피어있는 장미꽃 한 송이') 장미꽃 한송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그녀가 나를 향해 달려왔던' ('바다가 달려온다') '우리에 절었던 옛 시절' ('나무')이 스르르처럼 지나간다. 시의 행간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움을, 두근거리는 설렘을 되찾게 해준 김종석 시인을 축하한다.

- 이정호(영화감독, 한국영상위원회 위원장)

조국의 산천을 떠나 먼먼 이국땅에서 모국어로 시를 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시심(詩心)의 바탕을 유지하면서 인생과 사랑과 대자연의 풍경을 자기화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본연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이기도 하다. 김종석 시인의 이번 시집은 파란만장했던 지난 한 생을 지나오는 동안 누구보다도 '가슴 속 통증'의 세월을 보내었기에, '평생 한 여인만을 사랑'하며 살았기에, 인생이란 이름의 '슬픈 사람'을 시편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그는 '영원히 바람이고 싶어했던 영혼'을 지닌 사람이다. 그러기에 그는 오늘도 '밤마다 뒤편에 울부짖던 대나무숲' 그늘에서 서성이고 있을 것이다.

- 이승철(시인, 한국문학평화포럼 사무총장)



김종석 시인

e-mail: kimjongsuk2500@gmail.com

약력
·1977년 캐나다 이민
·캐나다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시 부문)
·캐나다한인문인협회 회원
·2014년 계간 '시현실' 여름호로 등단
·한국기독교문인협회 회원

시집
·2014년 『나는 내 소리를 잃었네』 발간
·2016년 『장미의 외출』 발간

